

[종합·해설]

총선 격전지

18대 총선에 나설 통합민주당 후보들의 공천 신청이 마무리됐다. 광주·전남에선 통합민주당의 공천장이 곧 당선증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당내 공천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전망이다. 18대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광주·전남 총선 격전지를 찾아가본다.

전·현의원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광주 동구

통합민주 3명 한나라 2명 등 7명 출사표

동구는 양형일 현 의원과 김경천·박주선 전 의원 등 통합민주당 후보 3명, 그리고 김태욱 전 광주케이블TV 사장 등 한나라당 후보 2명을 비롯 모두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로서는 박주선 전 의원과 양형일 현 의원이 물러설 수 없는 '빅매치'를 펼치고 있으며 여기에 '여성 대표성'을 노리는 김경천 전 의원이 가세하고 있는 양상이다.

■광주 동구 출마 예정자

Table with 5 columns: 이름, 나이, 소속, 학력, 경력. Lists candidates like 김경천, 박주선, 양형일, 김경일, 김태욱, 김광수, 조병현.

근년 광주시의회 양혜령 의원과 박종근 동구의회 부의장 등 전·현직 지방의원 12명으로부터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으로

로 김대중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거쳐 지난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은 묵직한 중량감과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지지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15일엔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과 동구의회 조영복 의장 등 동

구지역 기초·광역의원 8명이 '정치적 역량과 경력, 인품을 종합하면 동구와 광주의 현안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박 전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며, 25일엔 전·현직 기초·광역의원 24명이 지지선언을 하고 나섰다.

김경천 전 의원은 "호남에서 유일 한 지역구 여성의원으로서, 동구를 다시 탈환할 것"이라며 공천에서 여성 몫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예비후보인 김태욱 전 광주케이블TV사장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광주지역 문화시민단체 '문화행동'의 대표이기도 한 김 후보는 '돈 먹는 문화'가 아니라 '돈 버는 문화'로 동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후보 16명...정치 신인들 거센 도전

광주 남구

지병문-강운태 양자 구도 '공천권 전쟁'

통합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 평화통일가정당 1명 등 모두 16명의 후보가 난입해 있는 광주 남구는 통합민주당의 공천권을 거머쥐는 후보가 본선에서도 우세하다는 것이 지역의 일반적 시각이다.

■광주 남구 출마 예정자

Table with 5 columns: 이름, 나이, 소속, 학력, 경력. Lists candidates like 강운태, 김화진, 서경선, 서정선, 이승재, 이윤정, 정기남, 정병석, 정재훈, 지병문, 이승완, 홍기훈, 김명안, 노영복, 공석운, 강도석.

특히 통합민주당 지병문 의원과 무소속에서 최근 통합민주당 입당 신청을 한 강운태 전 의원 양자 구도 속에서, 공천 혁명을 기치로 내건 정치 신인들의 도전이 거센 곳이다.

으로, 조선훈 등 지역교수단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조직력을 내세워 유권자들을 과외하고 있다.

또 지난 16대 총선 당시 강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17대 때 지 의원을 도우며 인연을 맺어오다 이번 총선에서 경쟁자로 나서게 된 같은

당 김화진 후보도 남구청장 출마 등을 통해 얻은 높은 인지도를 내세우며 공천 경쟁에 뛰어들어 이들과 어떻게 겨룰지도 관심거리다.

정동영 후보 남구 선대위원장도 동아병원의 경영혁신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정치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표발을 다지고 있다.

같은 당 이윤정 한전 KDN 사의 경우 공기업에 혁신 마인드를 불어넣은 점을 부각시키며 당내에서 여성 몫으로 공천을 받았다는 각오로 지역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정치 신인들이 새 바람을 불어넣을 지도 관심사다.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 선대위 총괄조정실장을 맡았던 같은 당 정기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 수년동안 대북의료지원사업 등의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온 같은 당 서정선 아이안과 원장 등은 '젊고 패기있는 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같은 당 서경삼 조선훈 교수도 조선훈 교 협의장 등 쉐신 경력을 앞세워 표발을 일구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4·9 총선 현장

유종필 '부동산 부자 내각' 패러디



○유종필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새정부 장관 후보들의 주택·토지 등의 재산 내역과 관련, '부동산 부자 내각'에 대한 패러디 논평을 내 놓았다. 유 후보는 이날 "평균 재산이 39억 원에 이르는 '땅부자 클럽'의 이명박 정부 내각이 어떻게 서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비판.

이용섭 노인 복지 증진 여론 수렴



○이용섭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는 25일 신가·신창동 일대 경로당을 돌며 노인들과 만나 복지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 입성,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신 '북구 전문거리 활성화 앞장'



○김동신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는 25일 신안동 자동차 거리를 방문, 업체 대표와 근로자들을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

김 후보는 "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4대 전문거리를 활성화, 지역경제 회생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 활성화사업이 전국적인 모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

김재균 상인들과 만남의 자리



○김재균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는 25일 운양동 공구의 거리를 방문, 상인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 고 의견을 수렴.

김 후보는 이날 "북구청장을 지내면서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다"면서 "중소 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

정재훈 '남구미래발전협 구성'



○정재훈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25일 남구를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로 조성하기 위해 '남구미래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공약.

정 후보는 "지금까지는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체가 없어 현안에 따라 일부 갈등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남구의 전략을 수립 하고 또 실행할 정치적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역설.

김화진 '저소득층 가스요금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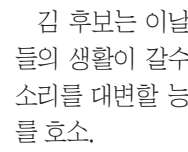
○김화진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25일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강조.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 입성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을 일정 수준 할인하는 정책을 마련,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



김경진 북갑 선거사무소 개소식

○김경진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고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전문 정치인이 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



김 후보는 이날 "취업·경제 문제로 학생들과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능력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

김승남 통장회의 바닥 민심 수렴



○김승남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는 25일 인곡동과 신가동 통장회의에 참석, 바닥 민심을 수렴.

김 후보는 "새정부 출범을 맞아 광주·전남에서도 그동안 지역민을 실망시켜온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마감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통합의 리더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4·9 총선에서 참신하고 유능한 일꾼이 선출돼야 국가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

남평오 학부모 간담회 교육현안 논의



○남평오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첨단·신창·신가 지역 학부모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을 논의.

남 후보는 이날 "첨단지역 일대 저공압고등학교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사 인센티브제 도입, 특목고 설립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의사·약사·교수 등 588명 '서정성 지지'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과 국제봉사단 회원, 교수 등 588명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정성 광주 남구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

이들은 이날 "함께 일어설시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의료지원사업을 비롯,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서 후보는 정치권에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Real Estate Broker) training courses. Includes text like '개원 40주년 기념 2월 3월반 특별이벤트', '수강료 전액무료', '전남고시학원',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청하' (Cheongha) restaurant. Features a large '청하' logo, text about '일식요리의 명가' (Famous for Japanese Cuisine), and details about dining options and reservations.